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1-12

오늘 본문은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다. 누림이 달라지고 믿음과 권세가 달라진다 자연적으로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 방법이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것이다. 예배 드리러 올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말씀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산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개인적인 말씀을 다 받았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나타난 결과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경복했다. 시대적인 인생, 표본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1.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대부분 시편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한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것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다. 예수님 오시기 천년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책은 없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천년이나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원죄가 일어난 에덴동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있다.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처음에 기록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놀라운 말씀이다. 보통 보면 시편에 작자를 기록해놓았는데, 이 본문은 작자가 기록이 되어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기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잡을 것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 약속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람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필요 없다. 아무리 경제가 떨어지고 난리나도 필요없다. 그래서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들어와서 언약되기를 바란다.

1-2절을 보면 세상의 이방인과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하나냐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다 그렇게 한다. 정치 지도자들 중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 표현이 군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많은 왕들이라는 뜻이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 다 해박야 헛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3-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잡힌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그것에 매인 느낌이 드는 것이다. 결박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는 것이다. 5-6절에 답을 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을 발하며 진노하면서 나의 왕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답이고, 그들에 대한 답이다. 그들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는가? 심

판이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망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7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는 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은 설명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썼다는 것이다. 육신을 가진 인간, 피조물의 한계이다. 누가 하나님을 알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뜻이다. 알고 믿을려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8-9절에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내게 구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였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부술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질그릇처럼 깨질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그의 왕에게 하신 약속이다. 우리 인생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 인생중에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머리를 질그릇같이 깨버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도록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는 내가 일 하나도 안해도 누리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다. 비참하게 병들어 정신병이나 기타 병으로 죽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깨져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되건 안되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으로 표현했다.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이다. 분명히 세상에 원수가 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분명 사단의 족속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팩트이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 원수로 받아야 할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맥없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바른 분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깨는 것이다. 물론 그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 선한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전쟁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용서를 마음에 담고 패스해야 할 사람도 있다. 그리고 말없이 하나님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둘다 사는 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 안에서 우리는 무한정 사랑과 용서만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생각해보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사실이기에 때문에 10-11절에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고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지혜가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를 말한다. 교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답이다. 안그러면 죽는다. 11절에 그렇게 해서 지혜와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결과는 뻔하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도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무 힘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냥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다. 아주 비참하다. 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 때에 하루는 저녁에 밖에 좀 나가봤다. 그때 아래를 쳐다보는데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환청인지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것은 나는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안하는데 지구는 돌아가는 것이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울어지지도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응답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처음 은혜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기도 응답이 안되기 때문에 기도 안한다고 선언한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표가 나겠지만 복음을 알고 난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랐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언약을 잡고 누려야 한다.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면 된다. 어느날 24에 이르면 내가 개인 혼자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해보라. 천년전에 기록했고, 에덴동산에서 기록된 단어가 지금도 그걸 잡으면 증거나 나타난다는 것이다. 에덴동산은 지금부터 6천년전이라고 성경기록으로 이야기 한다. 그 때 기록한 것을 오늘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매일매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던 중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아주 조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진짜 약속을 주셨다. 확실하다. 결단할수 있는 믿음과 시간표 오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대단한 결단이다. 누구든지 거기 도달해야 한다. 그 전에 해야 할 결단이 있다.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살겠다. 그래서 증거를 봐야 한다. 오늘 말씀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읽어 보라.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잡고 그것을 고백해라. 우리 기도제목을 수천 배 뛰어 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12절에 결론을 말씀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은 단 한단어도 뺄수 없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말씀이다. 한주간 내내 읽고 주신 단어를 잡기 바란다.

2.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춘 자이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된 것임을 안다. 그래서 믿음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 육신에 속해 있는 것도 내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무엇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내 육신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할 일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다.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 너의 인생중에 질그릇처럼 깨야 할 것을 깨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언약으로 누려야 한다. 너는 너의 인생의 길이 그의 약속의 피라고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길을 열겠다. 네가 곧 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약속이다. 그러면 이것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기도이다.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깎아주세요. 깨주세요. 기도하면 깨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것을 먼저 누리고 너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너의 친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네 인생이 길이 있냐? 너는 답이 있냐? 나는 답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누려봐라 그러면 너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답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은 피해갈수 없는 것이다. 피해가서도 안된다. 증인될만큼 복음을 누려야 한다. 증인될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다. 증인이 될만큼 복음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 아니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연다.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이다. 복음을 모를때에는 전도가 힘들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 방황했다. 전도지를 7-8년 나눠줘도 아무도 나 따라 안왔다. 그때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성경이야기를 했다.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이되고 길이 될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성경전체를 어떻게 그 답을 주나? 이제는 우리가 내용을 가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전도의 형태에 대한 것도 그림을 가지고 있다. 우리 훈련이다. 다섯기초, 스무가지 전도전략.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혜를 주셨다. 이것 아는 신자 드물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도 짝 찼다. 여자의 후손도 모른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짝 찼다. 수준이 그 정도이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불신자도 안다. 신자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런 포인트도 모른다면 이 분은 언약과는 관계 없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말이다. 믿기는 믿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그러나 할 말이 없다. 내용이 없다. 그래서는 전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둘다 안다. 놀라운 특혜이다. 이 시대적인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대적으로 시킬 일이 있으신 것이다. 언약 잡고 방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언약을 잡은 것까지는 좋지만 방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냥 언약잡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것도 하나님의 뜻 아닐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땅 끝이다. 눈을 뜨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복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놀라운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간단한 이 언약 하나 없어서 저주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답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달하면 할 일 끝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냥 복음을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다. 혹 더 알고 싶다고 하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 하면 된다. 이 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다.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는 눈 감고 있으면 안된다. 정말로 눈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먼저 복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안하겠는가? 우리는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남미에 나라담당하려고 한다. 미국에 문 열리면 주 담당도 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우리 보고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 전도 전략이 일어나야 한다. 문 열리면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 오늘도 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하러 온다. 이것이 미국의 문 열리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전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교회를 먼저 살려야 한다.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증거가 없어요? 너 복음이냐는 것이다. 간단하다. 이것 하나로 만가지 문제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 다른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이것 해야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오늘 본문과 같은 구원이라고 믿으면 오늘부터 기도하기 바란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실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질그릇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도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도 붙여주실 것이다. 전도를 지속할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먼저 언약을 잡고 누려서 응답을 받으라. 인생이 회복되어야 나에게도 길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말이 복음을 누릴 때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그냥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거나 어떻게든 누리기 바란다. 누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하겠다는 약속이기에. 그러면 당연히 잡아야 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